

OPINION

연구위원
김진영

미국 금융업권의 블록체인 활용 전략 차별화와 국내 시사점*

최근 미국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 영역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7월 「GENIUS Act」가 제정되고, 「CLARITY Act」가 하원을 통과하는 등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점진적으로 정비되는 가운데 미국의 자산운용사·투자은행(IB)·벤처캐피탈(VC) 등 각 금융 주체들은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온체인(On-chain)화’를 통해 운용 규모 확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선 블랙록의 BUIDL 펀드는 전통 MMF와 달리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며, 전통 금융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실물자산 토큰화의 이정표를 세웠다. 반면 투자은행은 ‘인프라의 온체인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JP모건의 Kinexys와 골드만삭스의 GS DAP는 블록체인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미래 금융의 핵심 운영체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준다. 이들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a16z Crypto와 Pantera Capital 같은 벤처캐피탈은 ‘금융 생태계의 온체인화’를 전망하며 곳곳에 자본을 투여하고 있다. 투자의 무게중심은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실용적 프로젝트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금융 역사를 바꿀 거대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은 꾸준한 기술적 혁신을 거듭하며 미래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금융권 또한 각각의 전략에 맞게 유연한 온체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규제 수립과 레거시 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그리고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배경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2025년을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2025년 7월 18일 GENIUS Act가 제정되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 규제 체계가 마련되었고, 같은 달 17일 하원에서는 CLARITY Act가 통과되어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라 CFTC 또는 SEC가 감독하는 시장구조 법안이 상원에서 논의되었다. 규제 명확화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은 주요 금융감독기구의 행정적 조치와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SEC는 2025년 Crypto Task Force를 출범시키고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¹⁾, CFTC도 파생상품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을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SEC, 2025. 1. 23, SEC Crypto 2.0: Acting Chairman Uyeda Announces Formation of New Crypto Task Force.

담보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파일럿과 가이드스를 발표했다.²⁾ 같은 해 OCC는 Circle, Fidelity Digital Assets, BitGo, Paxos, Ripple 등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의 국립 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인가를 조건부 승인해, 관련 사업자를 연방 은행 규제 체계로 편입하는 흐름을 보였다.³⁾

현지 금융권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블록체인의 활용을 선제적으로 실험해 왔다. 레거시 금융기관의 R&D와 직접 투자, 그리고 벤처캐피탈을 통한 혁신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은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향후 수립될 규제 체계 안에서 새로운 금융 시대의 수혜를 누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투자은행: 결제·정산 인프라의 온체인화⁴⁾

전통 투자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인 기업 금융 서비스와 자본시장 거래 중개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⁵⁾의 등장으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은 블록체인을 기존 시스템의 결제 지연 등과 같은 비효율성을 극복할 인프라 혁신 도구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거래 참여자를 제한하고 민감한 기업 금융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 초석을 다진 후 최근에는 유동성이 높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판매 창구를 넓히고 외부 금융 프로토콜과의 결합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⁶⁾

JP모건은 2015년부터 내부 연구 조직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Quorum을 통해 금융 환경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2019년 자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인 JPM 코인 출시와 2020년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부인 Onyx 출범을 통해 실험을 거친 후 기업 고객이 연체금 결제, 담보금 충전 등을 자동화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 기회를 자동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Onyx를 Kinexys로 리브랜딩하며 이 플랫폼이 누적 거래액 1.5조 달러를 넘어서는 실적을 거두었음을 알렸고, 24시간 실시간 통화 청산 및 정산 자동화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신원 확인, 그리고 외부 프로토콜과의 연계에 대한 탐구를 심화하였다. 2025년 기관 전용 예금 토큰의 시범 운영 체인으로 퍼블릭 체인인 코인베이스의 'Base'를 선택하여 퍼블릭 체인 위에서 기관용 결제·정산을 실험하였

2) CFTC, 2025. 12. 8, Acting Chairman Pham Announces Launch of Digital Assets Pilot Program for Tokenized Collateral in Derivatives Markets.

3) OCC, 2025. 12. 12, OCC Announces Conditional Approvals for Five National Trust Bank Charter Applications.

4) 온체인화는 어떤 거래나 자산,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5) 탈중앙화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 프로토콜이란 은행, 증권사, 거래소 같은 중앙 집중형 금융기관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 규약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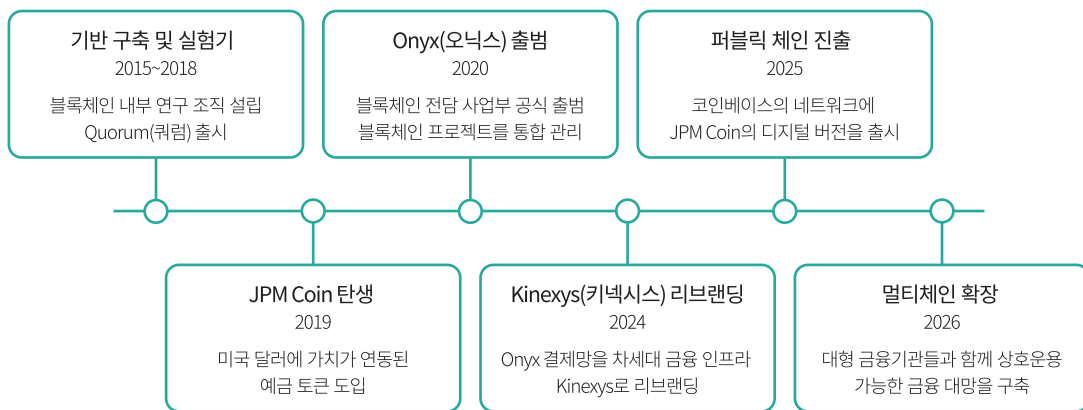
6) 퍼블릭 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대표적이다. 반면 프라이빗 체인은 특정 기관이나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폐쇄형 네트워크이다.

고, Canton Network⁷⁾를 통해 골드만삭스, BNY 멜론 등 타 기관과의 온체인 연결을 시도하며 글로벌 차세대 금융 표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또한 ‘GS DAP(Digital Asset Platform)’를 중심으로 금융자산의 발행부터 정산, 수탁, 담보 활용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GS DAP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2022년과 2024년 유럽투자은행(EIB)이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는데 참여하였으며, BNY 멜론과 협업하여 토큰화된 MMF를 출시하는데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하여 실물자산이 업무 시간 외에도 즉각적인 증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 GS DAP의 독립 스피너아웃 추진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타 기관들이 잠재적 경쟁자가 소유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거부감을 해소하고 더욱 중립적이며 널리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전통 투자은행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관점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JP모건의 방대한 결제 네트워크와 골드만삭스의 자산 생애주기 디지털화 플랫폼은 기존 기관 금융 시스템과 긴밀히 결합하며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이 중개 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위협론을 넘어, 투자은행 스스로가 미래 디지털 경제의 설계자이자 표준 운영체제로서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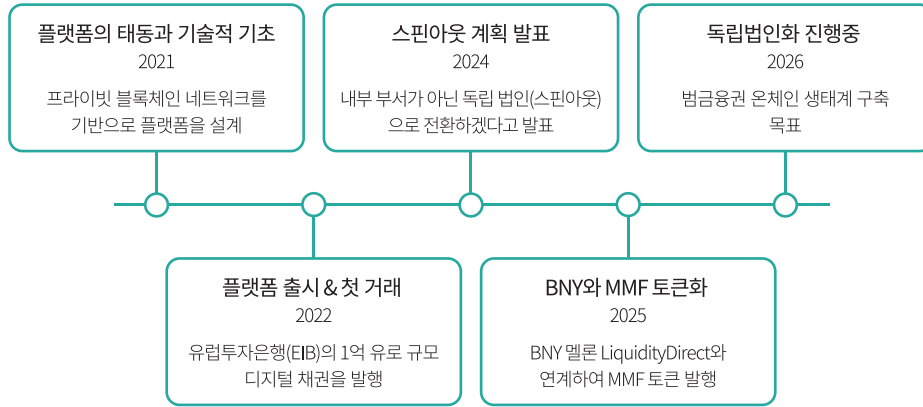
〈그림 1〉 JP모건 블록체인 기술 내재화 로드맵



주: J.P. Morgan 보도자료 기반 재구성

7) Canton Network는 금융권의 엄격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퍼블릭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각 기관이 데이터 주권과 기밀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서로 다른 원장 간의 원활한 자산 이동과 정산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금융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골드만삭스 GS DAP 주요 연혁



주: Goldman Sachs 보도자료 기반 재구성

자산운용사: 자산 토큰화와 유동성 확장

자산운용사의 핵심 수익원은 운용보수로 운용자산 규모 극대화하는 이들의 주요 목표인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의 실물자산 토큰화가 자산 상품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블랙록 등 주요 운용사들은 미국 국채 및 MMF 등 안정자산을 토큰화하여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담보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증권사 계좌와 기관 플랫폼을 활용해 별도 가상자산 지갑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일부 도입해 투자자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자산운용사 업계의 온체인화 흐름은 2021년 프랭클린 템플턴의 온체인 MMF 출시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위즈덤트리(WE)는 2023년 토큰화 MMF를 선보인 뒤 2024년 기관용 플랫폼과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블랙록의 'BUIDL'은 2024년 3월 출범 이후 단기 우량자산 투자 및 온체인 수익 분배 구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2025년 중반 약 29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여러 퍼블릭 체인에 배포돼 기관용 자산의 유통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아가, 블랙록의 BUIDL이 2025년 11월 바이낸스의 장외 담보로 채택되어 유동성 활용 사례를 넓혔고, 12월에는 JP모건 자산운용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MMF를 출시한 데 이어 2026년 3월 인베스코가 슈퍼스테이트로부터 토큰화 국채펀드 운용을 인수를 발표하며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레거시 자산운용사의 토큰화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사모펀드(PEF) 및 사모신용 시장 역시 해밀턴 레인, 아폴로, KKR 등 초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토큰화 자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시도되고 있다. KKR은 2022년 헬스케어 펀드를 토큰화했고, 아폴로는 2025년 토큰화된 사모신용 펀드 ACRED를 선보였다. 해밀턴 레인은 최근 온체인 글로벌 투자 플랫폼 Republic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토큰화와 자산 유통, 개인 투자자의 사

모시장 접근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종합하면, 글로벌 자산운용 업계는 기존의 보수 기반 수익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토큰화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다. 미국 주요 운용사들은 공·사모 자산의 온체인화를 통해 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차세대 디지털 자본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 초기기술단계 혁신과 생태계 빌딩

블록체인 VC 투자 규모는 2017~2018년 각각 60억 4천만 달러, 8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2021년에는 411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폭발적인 성장기 이후 2024~2025년에 이르러 안정적인 투자흐름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고). 미국 블록체인 VC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a16z(Andreessen Horowitz)와 같이 초기 프로토콜과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베팅하는 공격적 VC들의 역할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자본 공급을 넘어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블록체인의 제도권 진입을 뒷받침해 왔다. 특히 하락장에서도 웹3의 장기 잠재력에 베팅해 온 ‘혁신 투자’는 생태계의 자금 공급과 신뢰 신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는 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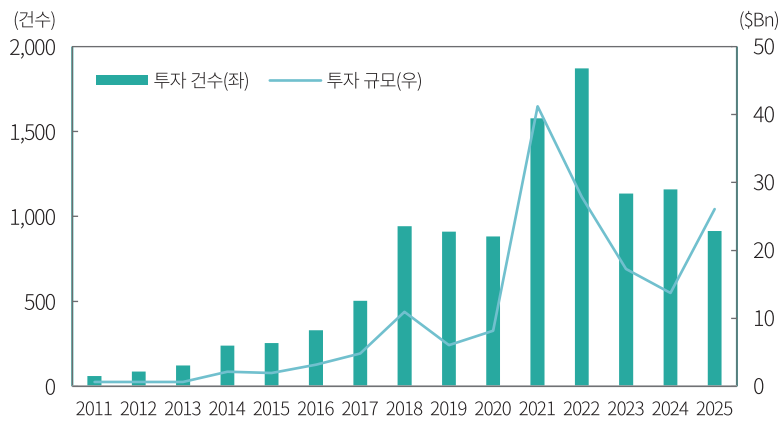
프로토콜 범주별 VC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투자 시장은 ‘기술의 탄생’ 단계에서 ‘실용적 확장’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그림 4> 참고). 2017~2018년에는 전체 투자의 절반 가까이(43.7%)가 이더리움 같은 기반 고속도로를 달는 L1(레이어 1)에 집중된 인프라 구축기였다면, 2024~2025년에 이르러서는 CEX(13.3%), 인프라(10.5%), DeFi(9.5%), 베팅(9.3%) 등으로 자금이 고르게 분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 RWA, 베팅처럼 사용자들의 수요와 직결된 응용 서비스들이 주요 투자처로 부상했으며, ‘Other’ 비중이 26.1%까지 급증한 것은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VC들은 원천 기술 투자와 함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투자를 넓히고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산업이 단순한 기술 담론을 넘어 상용화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서클, 디지털 에셋, 파이어블록스, 시큐리티이즈 등 주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이다.⁸⁾ 이들이 단행한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피투자사의 기술력을 검토하고 자사 서비스에 선택적으로 접목함으로써, 블록체인을 ‘미래 금융의 표준 운영체제’로 내재화하려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행보를 보인다. 기존 금융기관은 수십 년간

8) Circle의 주요 투자자는 BlackRock이며, Digital Asset은 BNY·iCapital·BNP Paribas·Goldman Sachs, Fireblocks는 BNY Mellon, Securitize는 BlackRock·Morgan Stanley·Hamilton Lane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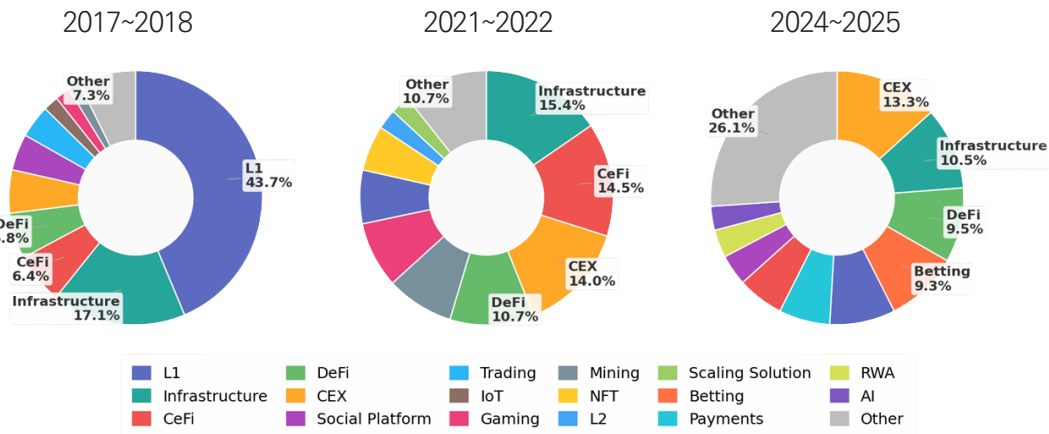
고착된 레거시 시스템만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나 고도의 보안 알고리즘을 즉각 구현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투자는 블록체인 생태계 핵심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레거시 금융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엔진 삼아 스스로를 온체인 기반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그 결과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과 거버넌스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림 3〉 블록체인 VC 투자 추이



자료: Preqin Pro

〈그림 4〉 블록체인 프로토콜별 VC 투자 비중



주 : 저자 계산
 자료: DefiLlama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시사점

미국 금융권의 사례는 블록체인이 더 이상 변방의 실험 기술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운영체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각 업권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해 왔다는 사실이다. 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온체인화를 통해 AUM 확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고, 투자은행은 결제·정산 인프라의 온체인화로 미래 금융망의 주도권 수성에 나섰다, 벤처캐피탈은 생태계 전반에 자본을 투여하며 인터넷 이후 가장 거대한 인프라 전환에 베팅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분화의 이면에는 규제 공백기에도 흔들림 없이 R&D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 온 미국 금융권의 장기적 호흡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금융권 역시 일률적 접근에서 벗어나 각 업권의 수익 구조와 핵심 역량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온체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첫째, GENIUS Act와 CLARITY Act 입법 절차에서 보듯 시장 혁신과 발맞춘 적시성 있는 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레거시 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를 통해 온체인 인프라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a16z Crypto와 Pantera Capital 등 미국계 VC가 하락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웹 3.0의 잠재력에 베팅한 ‘혁신 투자’와 같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초기 단계 프로토타입에 자본과 지원을 제공하는 선제적이고 실험적인 투자 정신이 국내 VC 생태계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넷째, 미국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핵심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며 기술 내재화와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에서 보듯,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현행 규제의 틀 안에서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이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지금,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차세대 디지털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